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3월 11일 (제94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사랑을 표현하라

“내 사랑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어/ 내 사랑 그대여 예수/ 오늘밤 꿈속에서 만나/ 사랑의 국경을 뛰어넘게 하소서/ 내 사랑 그대여 예수/ 내 사랑 그대여 예수/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내 사랑 예수’라는 시다. 여기에 곡을 붙여 찬양으로 부르고 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내 시를 보고는 “목사님, 목사님 시는 꼭 연애편지 같아요. 좀 이상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가서를 읽어보고 온 후에 다시 말하자.”고 말했다. 얼마 후에 그가 다시 내게 와서는 “아이구, 목사님! 목사님 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가서를 보니까 낮간지러울 정도로 애정 표현이 진하네요.”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야. 이제 내 시를 이해하겠는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자네도 사랑을 표현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형용사를 다 나열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을진대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상투적인 표현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실까. 구구절절 사랑을 표현해야 옳다. 그런데 왜 못하는 줄 아는가? 하나님을 구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저 멀리 계신 막연한 신(神)의 존재로만 여겨서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아버지가 되면 가능하다. 나는 그 분께 어찌하면 내 사랑을 더 표현할까, 어떡하면 절절 끊는 내 사랑을 글로, 말로 표현할까 하여 시(詩)도 쓰고, 곡을 붙여 찬양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 씨가 자라 싹이 나고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하면서도 안 그런 척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최고치로 표현하자.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우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깨닫지 못하면 원망, 깨달으면 감사

모세를 따라 애굽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벅찬 희망은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그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부서지고 말았다.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소리,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모세를 향한 원망과 저주 섞인 불평이 앞섰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불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소리에 마치 민원 해결해주듯 번번이 해소해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다.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이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를 거론하며 고린도교인들에게 오늘의 거울로 삼아야함을 역설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면 그 어떤 진리의 말씀도 소용이 없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항상 눈앞의 문제에만 천착하기에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 그러나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 그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는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이 늘 편안할 수는 없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어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 있으랴? 수많은 인생의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시23).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주셨다.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으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주셨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한순간에 멸절되고 말았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속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 그 수많은 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터밋까지 인도하셨건만,

를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전10:1~11).

2000년부터 목사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해외집회의 경험에 따르면, 호조건보다는 실상 악조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은 늘 역사해주셨고, 고뇌와 번민이 시간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살전 5:16~18)이기도 하거니와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4월 2(월)~5일(목) 문의: 02-533-9191
호텔예약: 3월 27일(화) 10시정각 홈페이지(www.jcc.tv)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9:43~50)



살이 남으려면 구조조정하라

성장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감히 잘못된 구조를 바꾸십시오.

구조조정이란 말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합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친척 중에 소사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자주 그곳에 놀러가곤 했는데, 그 분은 과수원을 다니면서 복숭아나무에서 잔 복숭아를 툭툭 따버리곤 했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제가 왜 그걸 따버리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잘라내야 복숭아가 더 커지고 맛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입니다. 잔 열매를 전지해서 나머지 열매가 더 싹하게 하는 것처럼,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업을 잘라냄으로 기업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IMF구제금융 시절, 대마불사를 호언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다 공중 분해되는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기업은 당시 우량계열사들을 처분하며 재빠르게 몸집을 줄이고 철저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성경에도 구조조정을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도 구조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복잡한 제사법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율법의 복잡한 과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열두 가지 재주가진 놈 저녁끼니 간 데 없단다

사사기 7장에도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람을 모았는데, 그 때 모인 사람이 3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삿7:1~8). 하나님은 그들도 많다고 하였고,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 3백 명만을 차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입니다. 병법도 모르고 겁 많은 자들이 많으면 오히려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 줄 아는 소수 정예부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외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비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은 한은택 목사와 송초현 전도사, 둘만 데리고 다니는데, 그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열 므나), 두 달란트(다섯 므나), 한 달란트(한 므나)를 주고 갔습니다. 몇 년 후 주인이 돌아와 회계를 했더니, 다들 갑절의 이윤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한 므나) 받은 종은 전혀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 몇몇 기업들은 100% 이윤을 창출한 반면, 어느 기업은 이윤을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윤을 남기지 못한 그들을 퇴출시켰습니다.

다(마 25:28~30).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이란 것이 기업에만 국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삶 속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육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성장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까지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3~47).

네 손이 죄를 짓거든, 네 발이 자주 범죄의 소굴로 너를 끌고 가거든, 네 눈이 못된 것만 쳐다보거든 과감히 네 손을, 네 발을, 네 눈을 제거해버리고 천국에 가

라는 것입니다. 계속 적자만 내는 계열사의 기업 하나 때문에 기업 전체가 공멸하지 말고, 그것을 잘라내어 기업을 살리듯, 죄를 끌어안은 신체 일부분 때문에, 네 못된 습관 때문에 네 영혼까지 공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발이 자주 범죄의 소굴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명예가 우선입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귀합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가장 귀한 영혼을 살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롯 유다 꼴 나고, 사울 꼴 나고, 들릴라를 잘라내지 못한 삼손 꼴 나고, 마태복음 19

장은 부자청년 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과의 견고한 진임을 알자 그것을 과감히 버렸

까(빌 3:8).

성경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 부모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처자나 형제가 방해하면 그것에서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냉정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어 부모도 구원하고, 형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샘플 아납니까?

다음은 정신적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정신개혁이 삶의 개혁입니다. 게으름, 불만불평, 나태함, 고착된 사고방식, 대충하는 습관, 교만, 위선, 거짓 등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 성공의 저해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나와야 싸움이지요. 이 싸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질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주부님들도 구조조정은 남의 일이 아

닙니다. 주부님들도 하셔야 합니다. 반찬 이것저것 만드느라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맛난 거 한 두 가지로 즐기세요. 옷장이 복잡하나요? 옷장 하나 더 사실 생각 말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조금 풍성한 분들, 살이 넘치는 건 좋지 않으니 운동해서 살도 정리하세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내장지방..., 이런 걸 정리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름은 결코 살이 안 된다

제 지인은 애들을 다 출가시키고는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괜히 집만 크면 험하고,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또 청소하기 힘들다고요. 그것도 구조조정입니다. 부부 둘이 사는데 작은 집이면 족합니다. 그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이윤이 나는 곳에 투자하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요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대세입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려 삶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배낭에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힘만 들고 정상에 오르기도 힘들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은 최소한의 것들만 챙깁니다. 성공이란 산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험준한 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에 등정하려면 꼭 긴요한 것들만 챙겨야 합니다.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가방이 간단하네, 어찌다 한 번 여행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가방이 서너 개입니다. 집에 치여서 여행을 제대로 못합니다. 긴 여정을 가는 인생도 이와 동일합니다.

국가도, 단체도,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에게도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모세가 조직개편을 했듯이,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를 정리했듯이 우리도 모든 면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내 삶에 이윤이 넘치게 합시다. 지금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영·혼·육의 구조조정, 지금 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마 7:19).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들어주세요!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외감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SNS의 발달로 인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문자나 메시지를 통하여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화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입을 닫고 살거나 아니면 한번 입을 열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다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대화란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이나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와 상사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일장연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열쇠는 바로 온전한 대화입니다.

대화의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약1:19)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인 것은 듣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농아인 예배를 인도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다가가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수화로 찬송도 함께하고 간단한 일상 대화와 설교제목 정도는 수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아인 성도 한 분이 제가 수화

를 잘하는 줄 알고 저에게 와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데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응시하며 고개도 끄덕여주고 제가 알고 있는 수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했는데도 밝은 얼굴로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남자들이 고급 술집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곳에서는 열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도 “사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라고 추임새까지 넣어주며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친구들마저도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변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고 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성경에세이 ::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라!

여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네. 오해(誤解)란 잘못 풀었다는 뜻이지.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이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지.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갔네.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갔지.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 장사를 해서 갑절로 이익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다네. 이를 본 주인이 이익을 남긴 자들은 칭찬하였으나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은 자는 호되게 야단치며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 다섯 달란트 있는 자를 줘라.”고 말씀하셨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29).

여기서 사람들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는데. 겨우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왜 갑절로 남겨 열 달란트나 가진 사람에게 주냐는 것이지. 열 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의 일부를 한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균등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거 아는가? 그제 공산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걸? 그제 옳던가? 아니네.

하나님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네. 그러나 아니네. 하나님은 절대 하향평준화를 꾀하는 분이 아니네. 그분은 상향평준화를 추구하시지. 한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열 달란트 있는 사람의 것 일부를 줘서 평준화를 시키면 발전이 없지.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만든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까지 줘서 더 큰 이익을 남기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란트 있던 자를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돈을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무엇을 더 맡길 수 있겠는가.

여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는가? 이 건 냉정이 아니라 냉철하신 말씀이라 여겨야 하네. 자네도 매사 인정, 사정, 동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 바라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는 다 죽는다는 걸 알게나.

朋友

‘어째서’보다 ‘무엇을’

사람들은 보통 뜻대로 일이 안되고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반응하며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물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탈리아에 ‘소오 엘리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다. 엘리나는 일찍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으나 폐병으로 인해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이제 병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어째서 나에게...’라는 원망 대신 ‘무엇을’이라고 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부친이 물려준 시골 농장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그 소출로 중국 선교를 도왔다. 그런데 환난의 바람이 또 불어왔다. 탈곡을 하던 중 오른손이 기계에 걸려 들어가 절단되고 만 것이다. 엘리나는 또 기도했다. “주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녀는 농장을 개조하여 양로원을 세우고, 버려진 노인들을 부모처럼 모시며 복음을 전하였다. 노인들은 그녀에게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녀는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여 가장 보람된 인생을 보냈다. ‘어째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은 도전과 사명감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늘 ‘어째서’라는 원망과 불평뿐이었다. 그 결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을 가졌기에 민족을 이끌 수 있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를 처음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다.

우리 이제 ‘어째서’의 부정을 버리고 새로이 기도하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분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귀를 기울이세요 ::

‘나(I)’보다는 ‘우리(We)’

지난달 2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올림픽이었으며 경기장 좌석 판매율도 높아 IOC 위원들을 미소 짓게 한 흑자올림픽이었다. 그리고 올림픽의 근본목표인 ‘평화’와 ‘화합’을 잘 보여준 올림픽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하나 되어 입장하고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한 몸으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이를 보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페어플레이와 연대/결속, 전 세계 스포츠인의 우정과 상호간의 이해>를 요구하는 올림픽정신 앞에서 일부 선수들이 ‘우리’보다는 ‘나’를 강조하다가 화를 당했다. 프랑스 알파인스키 대표선수 마티외 페브르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올림픽에 참석했다’는 경솔한 발언 뒤 프랑스 국민들의 집중포화를 맞고 올림픽 기간 도중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쫓겨 갔다.

또, 개최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Team Pursuit)’

종목에서 ‘낮부끄러운 ‘왕따 사건’의 단면이 드러나며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다. ‘팀추월’ 종목은 3명의 구성원이 상대팀의 꼬리를 잡듯 같은 방향으로 400m 트랙을 돌아 마지막 선수의 골인기록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인데, 종목에 ‘팀’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팀은 2명의 선수가 뒤쳐진 1명의 선수를 쫓기지 않고 그대로 골인지점을 통과해버렸다. 그에 더해, 부진했던 경기 결과를 두고 뒤쳐져 들어온 선수에게 원인을 돌리는 듯한 한 팀원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국민들은 청와대에 왕따를 자행한 선수들의 국가대표 권한을 박탈하자는 청원까지 올리게 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장성한 자는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한다.’고 늘 말씀하신다. 나만을 생각하는 어린 신앙을 버리고 나보다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어떤 생각을 하는가!

착하고 믿음이 좋은 처녀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 청년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저 남자의 다리가 되어준다면 저 남자는 무척 행복해할 거야.’ 하고 그 남자 집으로 가서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한다.

처녀의 집에서는 반대가 말도 못할 정도였다 “나에게 늘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고 했잖아요?” 하면서 처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딸은 불구자에게 시집을 갔다. 신랑도, 신랑가족도 너무 좋아서 천국기분이었다.

결혼하고 3년을 집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봐오라고 내보냈다. 3년 만에 그녀는 집밖을 나왔고, 시장에 가서 생선과 채소를 사며 가격을 조금 깎기도 하며 너무나 행복했다.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겠지.’ 하며 집에 왔는데 남편이 시뻘건 얼굴을 하고서는 큰소리를 질렀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시장 갔다 왔어요...”, “빨리 방에 들어와. 오늘 밖에서 어떤 사람, 누구 만나고 왔어? 빨리 대답 안 해?”, “생선장사와 계란장사, 또 감자랑 야채장사요... 왜 그래요?”

이 남자는 부인이 시장 갔다 오는 동안에 나쁜 생각에 빠져있었다. ‘내 아내는 너무 착해. 너무 예뻐. 길을 가다가 멋진 남

자를 만나면 그 남자 따라가지 이 집에 돌아오겠어? 나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갈 거야.’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나 있었다.

“또 누구 만났어? 말 안 해?”, “제발 화내지 마세요. 만나기는 누굴 만나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하면서 옆에 있던 연탄집게를 손에 들고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을 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려칠 때마다 하얀 피부에 시퍼런 멍이 생겼다. 맞으면서 여자는 생각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행복했는데...’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 맞고 있었다.

한참을 때리던 남자가 제정신이 들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미쳤어. 두 번 다시 안 그렇게.” 하며 빌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열심을 다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남편은 부인이 자리를 잠깐 비우기만 하면 “내 아내는 너무 착해. 너무 예뻐. 길을 가다가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버리고 그 멋진 남자를 따라갈 거야.”라는 생각에 미치도록 견딜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 아내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

음에서는 그 나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면 또 제정신을 잃고 때리고, 또 제정신이 돌아오면 ‘잘못했어, 용서해줘’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이제 그 가정에는 웃음이 없어졌다. 어느 날 이 아내는 가족을 불러놓고 “내가 결혼한다고 할 때 내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나는 당신의 발이 되고 다리가 되어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나와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 매일같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기에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못했다.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그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아내와 같은 생명을, 인생을, 성령을 내 생각으로, 내 맘대로 고집하며 마구잡이로 확대하며 때리고 아프게 하는 불구자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적은 없는지요? 떠나고 놓치기 전에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 성령의 선물을 그 가치대로 접해서 진정 축복을 축복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김경숙 목사

:: 동행하는 삶 ::

예수쟁이

대학시절, 그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를 하던 때였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 거의 매일 교회에 가다시피 했었고, 대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학생들을 심방했었고, 노방전도에도 열중했었다. 그 시절 나의 세상 친구들은 동아리활동이나 미팅 등으로 대학생활을 즐겼지만 나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친구들이 나에게도 그런 대학생활의 기쁨을 수시로 권했지만 나는 교회 가기에 바빴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그런 나를 예수쟁이라 불렀다. 사실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릴만한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친구들조차도 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한 번씩은 나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다. 다시 가자고 이야기하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가겠다고 미루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는 쉬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모두 나를 따라 한 번씩은 교회에 따라가거나 혹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 정착하

는 친구나 동료는 없었지만,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다.

시간이 지나서 당시 그 친구들과 동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여 아이 엄마가 되었는데, 지금은 나를 따라 교회에 갔던 친구들과 동료들 대부분이 감사하게도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핸드폰에 나를 예수쟁이라 저장해놓고 만날 때마다 놀리듯 말했던 친구와 최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랬던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에 다니며 매주 구역예배도 드리고 성경통독도 하고 있다 한다. 성인이 된 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성경 속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궁금하다며 전화로 묻는 친구들도 있다. 나를 생각하고 전화해준 것이 고마워 열심히 설명해주기도 한다. 씨를 뿌리면 언젠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구나 생각했다.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가 문득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결혼과 육아라는 핑계로 전도에 대한 갈망은 늘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 그 때의 가슴 속 열정 대신 ‘과연 될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이 어느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다들 지식인이라는 생각에 종교적인 부분은 내가 침범하면 안 된다는 나름의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다. 전도하고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보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분명하고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다짐한다. 쭈뼛대고 머뭇대는 모습은 이제 벗어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던 때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한 번 듣고 싶게 된 말.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정효경
happy_holly@naver.com

결승점은 하늘에

인생을 살다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된다. 물론 긍정적인 비교는 삶에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비교에 마음이 더욱 쉽게 기울어지는게 사실이다.

학생은 ‘누구는 어느 대학교를 가는데 나는 재수를 하고 있구나.’라며 자책하기도 하고, 직장인은 ‘누구는 연봉이 얼마인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생각하기도 한다. 다른 가정을 보며 ‘누구 네는 아파트 몇 평에 사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데서 살 수 있을까.’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어느 장로님이 축복을 받아 몇십 억대의 자산이 있다는 간증을 들으면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끼기도 한다.

인생이 경주이고, 학생이 재수를 하고 있다면 이미 경주에서 진 것일 수 있다. 나이는 더 많은데 연봉이 더 낮고, 내 집 평수가 더 작다면 진 것일 수 있다. 단,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결승점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에 서 있는 그 자리는 결승점이 아니다. 요셉이 노예 혹은 죄수였을 때 그 자리가 인생이란 경주의 결승점이라 생각했다면 실패자였겠지만, 총리가 되었을 때 결승점이라면 성공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조차도 인생의 결승점은 아니다. 그 결승점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내가 선 곳이 비록 낮은 곳일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아직 경주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선 곳이 성공자의 반열로 선두에 서 있다 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 아직 경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는 자라며 고개를 숙이는 벼의 겸손함과 어느 상황에서든 다시 일어서는 오뎅이 같은 끈기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들 인생의 결승점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 곳은 당신의 결승점이 아니다. 만사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와 겸손, 그리고 베푸는 삶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곳이 당신의 결승점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영
cross35@hanmail.net

JC아카데미

3월 13일(화) 개강

구반포역 3번출구
엘루체컨벤션 5층
매주 화요일 저녁 8시